The Market

LS Edge Investment Strategy | 투자코멘트 | 2026. 1. 28

셧다운 확률 80%와 최악의 한파, 외면할수록 다가오는 리스크

마켓 황산해
sh.hwang@ls-sec.co.kr

기다렸던 어닝시즌, 눈치 없는 한파와 셧다운

기대감 가득했던 4Q25 어닝시즌. 미국의 겨울폭풍 피해와 정부 셧다운 리스크가 잠재적 실적 교란 요인으로 급부상. 인프라 피해, 생산 차질, 소비 위축, 스케줄 취소 등의 형태로 1Q26 실적 가이던스에 부정적 영향 가능성. 미 증시의 실적 기여도가 높은 AI 밸류체인의 낙관은 견조할 것. 그러나 이번 어닝 시즌에서 S&P493의 키 맞추기, 섹터 로테이션 등 성장의 확산이 기대되었던 상황. 순환에 대한 기대감이 되돌려질 가능성 경계할 필요

리스크 확대 or 축소, 주 후반 판가름

천연가스 폭등을 유발한 역대급 미 겨울 폭풍(Winter Storm)은 이번 주말 동부 지역에 또다른 폭풍이 예고되며 여전히 현재 진행형. 피해 규모가 '21년 텍사스 정전사태를 상기시킬 만큼 확산 중. 연구기관들은 해당 피해의 연쇄적 영향으로 GDP가 연간 -0.5%~-2%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

한편 1/31(토) 미 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80%에 육박(Polymarket). 20%에 불과했던 확률. 미네소타주 이민 단속 총격사망사고를 계기로 민주당 의원들이 이민단속국과 국토안보부 예산 삭감을 요구하며 급등. 총격 대상을 테러범으로 지칭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스탠스 변경하며 미네소타주 달래기에 나섰으나 역부족

관련 비용 추정과 가이던스 하향조정 강제 불가피

'윈터스톰'과 '셧다운' 키워드는 사태 발생 시 기업들의 어닝콜에 빈번히 등장. 1Q21에는 텍사스 윈터스톰 발생으로 S&P500 어닝콜에서 약300건의 언급 발생. 셧다운 역시 발생과 동시에 200~300건가량의 언급이 발생하며 기업들의 관련 비용 추정과 가이던스 하향조정을 강제한 이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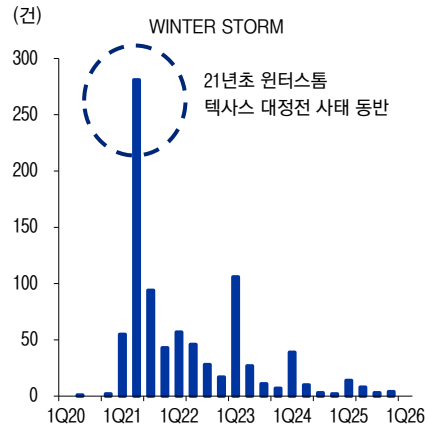
금번 어닝시즌은 1/27 아메리칸 항공의 실적발표가 대표적 예시. CEO는 겨울폭풍으로 9천건의 항공편 취소와 1Q26 운항능력의 감소 언급. 1.5억에서 2억 달러의 매출 손실 전망

피해 업종 사례, 인프라/소재/항공/방산

과거 사례를 통해 윈터스톰은 전력공급업체, 소재, 항공 업종의 실적에 부정적 영향 확인. NRG에너지, 센터포인트에너지 등은 과거 인프라 피해 규모를 호소. 다우케미컬은 금번 윈터스톰에서도 다수의 공장을 조기 폐쇄. 한편 제네락(비상발전설비), 킨더모건(LNG 터미널) 등 수혜 영역들도 일부 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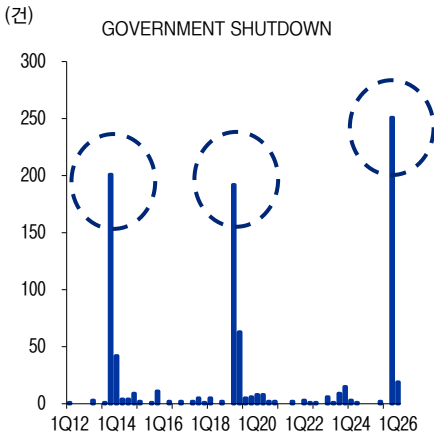
항공 업종은 셧다운발 소비 위축과 윈터스톰 피해에 모두 노출. 셧다운의 경우 정부 향 계약 피해와 경제 전반 소비 위축 발생. 방산, 컨설팅, 중장비 업종 피해 포착. 소비재, 리테일, 금융 등도 경제활동 감소에 따른 피해 발생

그림1 S&P500 어닝콜 윈터스톰 언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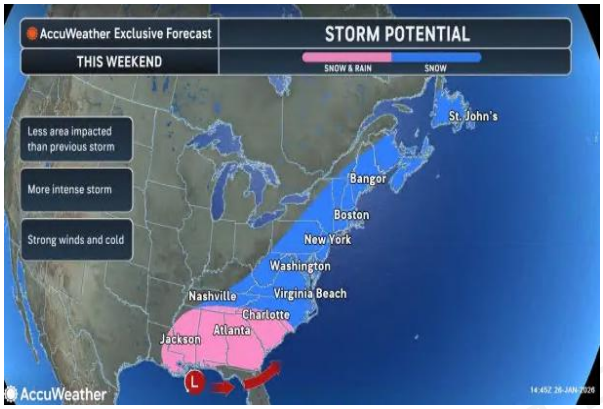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2 S&P500 어닝콜 셧다운 언급 추이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3 주말 또다른 겨울폭풍이 예고된 미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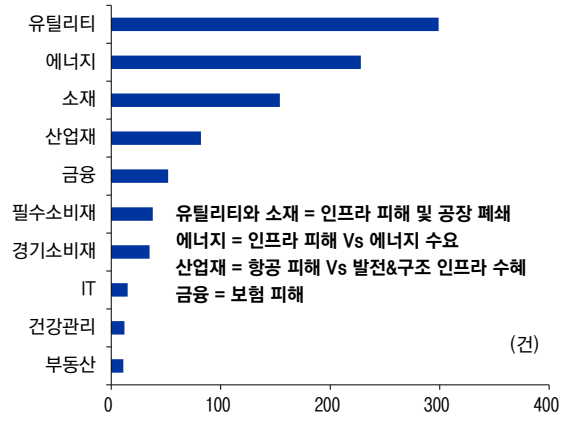


자료: AccuWeather,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4 1/31 미 정부 셧다운 확률, 80% 육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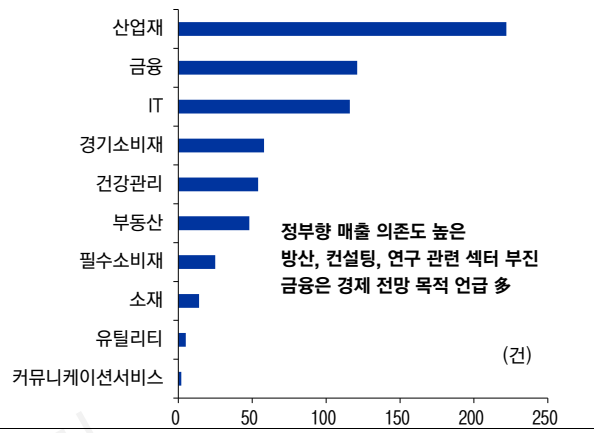
자료: Polymarket,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5 1Q10~4Q25 어닝콜, 섹터별 '원터스톰' 언급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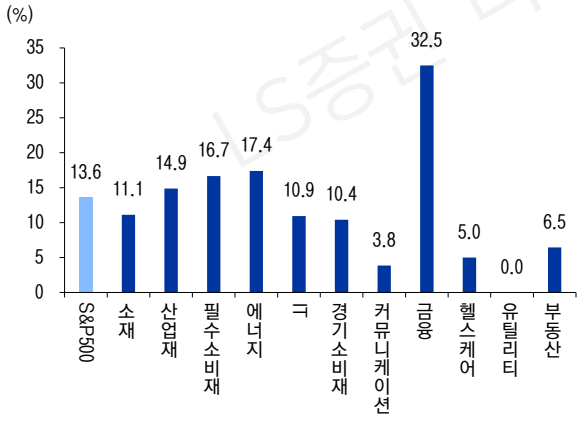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6 1Q10~4Q25 어닝콜, 섹터별 '셧다운' 언급 횟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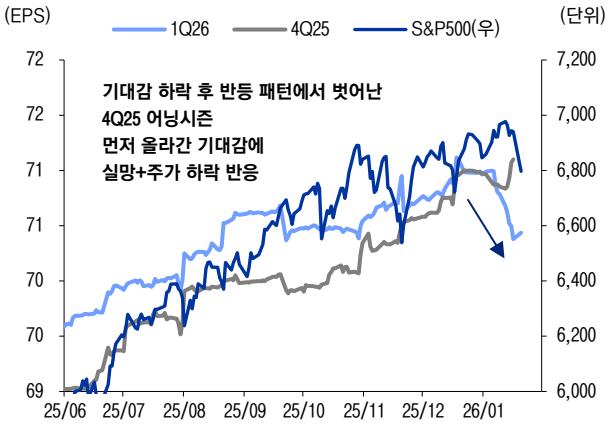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7 14% 가량 진행된 4Q25 어닝시즌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8 실적발표 진행되며 1Q26 낙관은 후퇴



자료: Bloomberg, LS증권 리서치센터

그림9 1Q10~4Q25 어닝콜, 기업별 키워드 언급 횟수 총합

셧다운			
	기업명	섹터	언급 횟수
1	레이도스 홀딩스	산업재	43
2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산업재	23
3	델타 에어라인스	산업재	23
4	CDW	IT	20
5	유나이티드 에어라인스 홀딩스	산업재	20
6	호스트 호텔 & 리조츠	부동산	20
7	레비티	건강관리	18
8	메리어트 인터내셔널/메릴랜드	경기소비재	17
9	노스롭 그루만	산업재	16
10	WW 그레인저	산업재	16
11	록히드 마틴	산업재	15
12	바이오-테크네	건강관리	13
13	오토매틱 데이터 프로세싱	산업재	13
14	모토로라 솔루션스	IT	12
15	골드만삭스 그룹	금융	12
16	포드 모터 컴퍼니	경기소비재	12
17	로퍼 테크놀로지스	IT	12
18	제너럴 다이내믹스	산업재	10
19	레나	경기소비재	10
20	F5	IT	9
21	키코프	금융	9
22	써모 피셔 사이언티픽	건강관리	9
23	씨티그룹	금융	9
24	텔레다인 테크놀로지스	IT	9
25	비자	금융	7
26	에퀴티 레지덴셜	부동산	7
27	블랙스톤	금융	7
28	힐튼 월드와이드 홀딩스	경기소비재	7
29	Cisco Systems Inc	IT	6
30	JP모간 체이스	금융	6

윈터스톰			
	기업명	섹터	언급 횟수
1	NRG 에너지	유틸리티	71
2	센터포인트 에너지	유틸리티	49
3	킨더 모건	에너지	46
4	Dow Inc	소재	46
5	인터내셔널 페이퍼	소재	36
6	애트모스 에너지	유틸리티	34
7	제네락 홀딩스	산업재	29
8	트랙터 서플라이	경기소비재	28
9	필립스 66	에너지	28
10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스	산업재	27
11	비스트라	유틸리티	27
12	에버지	유틸리티	26
13	원오케이	에너지	26
14	윌리엄스 컴퍼니스	에너지	25
15	타가 리소시스	에너지	25
16	트래블러스 컴퍼니스	금융	21
17	엔터지	유틸리티	21
18	엑셀 에너지	유틸리티	19
19	듀크 에너지	유틸리티	19
20	처브	금융	18
21	델타 에어라인스	산업재	16
22	셔윈-윌리엄즈	소재	16
23	노퍽서던	산업재	14
24	옥시덴털 페트롤리움	에너지	14
25	에어 프로덕츠 앤드 케미컬스	소재	14
26	하트포드 인슈어런스 그룹	금융	13
27	CF 인더스트리스 홀딩스	소재	13
28	라이온델바젤 인더스트리스	소재	12
29	발레로 에너지	에너지	12
30	쉐브론	에너지	12

자료: LS증권 리서치센터

LS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작성자: 황산해).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본부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한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유가증권 투자 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당사의 동의 없이 복제, 배포, 전송, 변형될 수 없습니다.

_ 동 자료는 제공시점 현재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당사에서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은 전일 기준 현재 당사의 조사분석 담당자 및 그 배우자 등 관련자가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_ 동 자료의 추천종목에 해당하는 회사는 당사와 계열회사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LS증권 리